

여호와와 구원이시다 -복음으로 여는 이사야- 이사야 53:5, 베드로전서 2:24

정윤돈 목사님

* **사53:5**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 **벧전2: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므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절대불가능한 영육 간의 질병들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직장과 나의 산업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하옵시며, 그 속에서 절대미션을 발견하고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성취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새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론 : 영혼이 찢림과 남은 자의 삶

우리의 영혼이 찢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가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독서토론회를 하자고 해서 약 10명 정도 모여서 1년 동안 진행한 적이 있다. 그 친구들은 다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서울 법대 등을 나온 친구들이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대화를 해보니 이 친구들이 세상 지식은 많지만, 정작 중요한 인생의 지혜나 영적인 부분은 많이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제안했다. "우리끼리 모여서 말만 하지 말고, 책은 각자 읽고 봉사활동을 하자"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고아원에 가서 1년 동안 아학을 열고 공부를 가르쳤다. 공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경말씀도 가르쳤다. 칠판에 쓰고 집중해서 가르치다 보니, 처음에는 학교 숙제도 안 해가고 도시락만 챙겨 가고 책이나 노트도 없던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그 아이들 50명 이상이 다 대학에 갔고,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영혼이 찢어질 같이 법사가 찢어진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 공부를 조금 못해도 괜찮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된다. 나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릴까를 고민해야 한다. 그 핵심이 복음이고, 내가 가진 지식과 달란트로 섬기는 것이다. 나, 내 가정, 내 자식, 내 교회, 내 사업만 생각하면 항상 행복해질 수 없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3천 제자를 만들고, 이 나라와 민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큰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이다. 그 남은 자들이 나중에 가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신실교회 박 장로님 이야기를 아시는가? 그분은 혼자서 교회 헌금을 거의 다 감당하고 전도도 도맡아 하셨다. 나중에 거기서 국무총리가 나왔는데, 그분이 항상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출근하셔서 '새벽총리'라고 불렸다. 한 중직자가 내가 교회를 살리겠다고 결단하고 100개 이상의 교회를 지으셨다.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마찬가지다. 삼성 본사의 전기요금도 안 나올 정도로 모든 것을 올린해서 반도체 사업에 투자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이것이 미래의 먹거리라고 확신하고 올린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다. 남들은 대충 살고 나만을 위해 살 때, 내가 해야 할 일에 24시간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25시, 영원한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남은 자다. 처음에는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일을 맡기시고 나중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이것도 대충, 저것도 대충, 생각도 안 하고 시간만 때우고 평계만 대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 그것은 남은 자가 될 수 없고 이미 찢려 나간 자가 되는 것이다. 불평, 불만하고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 힘들다"하지 말고, 아침을 최고의 축복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 깊은 호흡을 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시간으로 회복해야 한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 고양이 자세로 30분 동안 스트레칭을 하는데, 그러면 몸의 가스가 다 빠져나간다. 그때 무엇을 생각했는가? 스트레칭하면서 기도하고, 이 닭을 때도 기도한다. 계속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기도하는 은혜에 돈을 저축하는 것과 같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 제가 33때 어머니와 함께 1년 동안 작정기회를 했는데, 그 후로 느낀 것이 "만사가 형통하구나"라는 것이었다. 10년 동안 만사가 형통했다. 대학에 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도와주고, 좋은 믿음의 경영학과 교수님을 만나 매일 점심마다 성경공부를 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이다. 영혼이 찢어질 같이 법사가 찢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매일 점심시간을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나만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우리 램버트 청년들이 홍콩으로 어학연수를 가는데, 홍콩 옆에 심천이 있다. 제가 예전에 심천에 스키를 타러 갔을 때 렌탈샵에 들렀는데, 거기 청년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줬다. '아리랑 렌탈'이라는 곳이었었는데, 특히 남자직원 한 명이 눈에 띄게 밝고 일을 잘했다. 친해져서 물어보니 심천에 살았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심천에 가는데 도와달라, 우리 교회에도 와라"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저도 원래는 기독교였는데요"라고 했다. '원래 기독교'가 어디 있는가? 그만큼 복음을 모르니까 선교사님과 지낼 때는 기독교인이었다가, 한국에 오면 종교가 없어지는 수준인 것이다. 눈을 뜨고 보면 모든 만남이 전도의 발이 된다. 왜 만나고 왜 가고 왜 일을 하고, 왜 밥을 먹는가? 그들을 살리고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다. 군대를 가든 직장을 가든, 가장 먼저 내가 할 일을 잘해야 한다. 제일 어려운 전도가 직장전도다. 쉬운 전도는 노방전도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진짜 남은 자들은 직장전도에서 빛이 되어 성공했다. 다니엘, 에스더 모두 직장생활 승리자들이다. 직장에서 일을 대충 하고 맨날 핑계 대고 요령만 피우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전도의 문을 막는 것이다. 말 안 해도 빛과 향기는 다 보인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먼저 술선수발해야 한다. "이거 내 일 아니에요" "라며 도망가면 안 된다. 제가 초등학교 때 청소당번을 하면 도망가는 친구들이 꼭 있었다. 저는 마지막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에 항상 끝까지 청소했는데, 도망가는 놈들은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도망가려면 가라지. 여러분이 함께 돕고 남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밤시간은 인생 최후의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다. 요새 저는 저녁마다 씨를 가지고 작품을 하나씩 만드는데 아주 재밌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 조금씩 다 갖게 만들면 된다. 음식이 맛있으면 손님이 오고, 작품이 좋으면 다 된다. 그게 목적이지 "왜 나는 안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세계적으로, 우주를 정복할 정도로 만드셔야 한다. 직접 안 해도 기도만 해도 된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24집중해서 25시간의 시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영원히 남는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밤마다 기도하고 책 읽고 준비하며 천 년의 응답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 램버트들이 홍콩 어학연수를 가는데 큰 응답을 받았다. 가서 아무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걱정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대구 대학캠프를 보내주셨다. 그쪽 훈련 담당 목사님께서 연락해서 우리 애들 훈련 좀 시켜달라고 했더니, 영적 상태가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 자기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훈련만 한다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리 홍콩까지 가서 왜 훈련만 하느냐, 전도도 하고 관광도 해야지"라고 했다. 결국 우리 애들은 먼저 가서 놀기도 하고 적응하면서 응답을 잘 받은 것 같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두신 것이다. 홍콩에 갈 때마다 부러운 것이 있다. 홍콩의 어느 교회가 월세가 몇 천만 원인데 장로님들이 돈을 잘 벌어서 헌신하기가 바로바로 옮기더라. 홍콩은 금융과 무역의 허브다. 중국의 무역은 줄어도 홍콩은 많아진다. 모든 돈이 거기로 들어간다. 광둥어, 중국어, 영어를 다 쓰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곳이다. 우리 후대들을 그곳에 보내서 세계적인 갑부로, 플랫폼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제가 예전에 부모 없는 아이들 100명 가까이 대학을 보내고 잘 살게 했는데, 서울에 와서 보니 여러분은 다 가능성이다. "엄마, 아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데, 여러분은 다 있지 않느냐" 문제는 영혼이 찢어지지 않는 것이다. 강단메시지에 집중을 못 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그 영적 상태가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중직자, 사역자가 돼서 그런 사람들을 깨우고, 오직 예수로 결론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비록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남들은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어렵지 않다. 밤새 책을 읽고 공부하고 일해도 하나님도 힘들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이다.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24시간 밤새 계속해도 힘들지 않은 것을 여러분은 찾아야 한다. 그 응답 속에 있으면, 남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묻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님도 힘들지 않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인생을 헛사는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고 24시간 뛰어도 하나님도 힘들지 않은 상태,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정주영 회장같은 분들이 다 그렇지 않은가? 비록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지라도, 각 분야에서 '남은 자'로 있었기 때문에 정주영 회장이 만든 조선소를 통해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시대마다. 나라의 위기 때마다 이순신 장군처럼 그런 남은 자가 있었다. 나라와 시대를 위해서 거창하게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교회가 위기일 때 여러분이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여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방관하는 자, 남의 일로 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직장이나 회사, 가정과 가문에서도 다 마찬가지다.

1. 이사야서의 배경과 시대적 상황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를 보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처럼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겪었지만, 진짜 복음을 깨달았기에 66경이나 되는 대담을 썼다. 이사야서에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 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하다 거룩하다"하는 찬양도 이사야서에 나오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도 다 여기서 인용된 것이다. 온갖 고통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고, 이사야 53장을 '구약의 십자가'라고 부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모습과 의미를 기록하고 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란다.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될 때 모든 문제가 끝난다. 인생을 끝내라니지 마라.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다. 여호와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생각, 마음, 가정, 가문, 나라, 민족까지 다 구원하실 수 있다.

여러분이 사는 직장까지 여호와가 모든 것을 살려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시기를 축원드린다. 이사가 선지자는 왕족으로 태어났다. 오시아 왕의 사촌으로 본다. 그는 50년 동안 선지가 활동을 하며 잘못된 길로 가는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에게 경고하다가, 결국 므낫세 왕에 의해 토폰으로 쳐져서 순교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유대인 전승기록인 '이사야의 승천'에 자세히 나온다.

이사야서의 전체 흐름은 ① 하나님의 거룩하심 → ② 심판 → ③ 대속 → ④ 회복 → 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사야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무너진 인간을 심판하시되, 고난받는 종자인 메시아를 통하여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이루시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이사야 시대의 배경을 보면 1장 1절에 "유다 왕 오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오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라고 나온다. 이사가 선지자는 50년 동안 남유다 왕국에서 선지가 활동을 하며 계속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선포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스트레스의 연속이었다. 왜냐하면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 경 앗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처참하게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남유다 백성들은 "나는 아직 안 망했으니 오늘은 괜찮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이사야의 눈에는 그들의 멸망이 훤히 보였다. 결국 이렇게 될 것인데 이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보였던 것이다. 무엇보다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았는가? 어떤 청년이나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기로 어떻게 될지 훤히 보인다. 그 길을 그대로 가서 결국 처참하게 무너지는 데까지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모르고 그 길을 간다.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시공 간을 초월하여 미래가 보이게 된다. "아, 이 램넌트, 이 후대가 그루터기로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구나"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보여야 한다. 반대로 "저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구나. 지금은 잘나가는 것 같지만 앞으로 이렇게 가면 망하겠구나. 어두운 속에서 캄캄한 길로 가고 있구나"하는 것이 보여야 한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것이 보인다.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의 여정, 복의 근원의 길을 걸어가기기를 축원한다. 그 길이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재앙 같고 광야 같아 보일지라도, 요셉이나 다니엘 에스더의 여정을 보면 그것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었다. 포로, 노예, 속국, 광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벽한 축복의 길을 걸어 가게 하시는 것이요 보여야 한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자가 되어 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 망할 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보여야 한다. 아무것도 모른 채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며 살고 있는 그들의 실상이 빛을 가진 여러분에게는 보여야 한다.

(1) 오시아 왕 : 영적으로 교만하여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스스로 하려다가 나병에 걸려 격리되었다.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가면 교만해져서 순종하지 않으려 한다.

(2) 요담 왕 : 크게 잘못된 건 없지만 백성들의 우상숭배를 방치했다. 왕으로서 그것을 막고 가르쳐야 했는데 '이래도 돼, 저래도 돼'하며 방임했다. 이것은 악하고 계몽은 것이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평계만 대는 것은 악한 것이다. 무능은 죄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직원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계만 대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사장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정말 악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능이며 흑암이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재정, 인공, 공회, 일, 전도 등 모든 면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며 번성해야 한다. 절대 일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마귀는 이 모든 것을 못하게 만든다.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 풍요롭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단메시지를 붙잡고 성령충만, 기도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것을 체험해야 한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예배드릴 때만 잠깐 은혜를 받았다가, 문밖을 나서는 순간 불이 꺼지듯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도 땀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소리도 내지 않고 대중 기도해서야 되겠는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야 되겠는가?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끝낼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제대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인생을 마치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3) 아하스 왕 :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앗수르 제국을 의지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물을 움직이시는데, 세상을 더 의지한다. 여러분이 단 5분이라도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조금만 해도 환경,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고의 행복자, 최고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 지구상에서 나만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지구를 돌리고 계신다고 믿어야 한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것이 진자이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매일 세상에 끌려 다니고 불행뿐만 하며, 응답도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아무도 살릴 수 없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것을 얻었다. 그런데 그것을 땅에 묻어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안 된다.

(4) 히스기야 왕 : 훌륭한 왕이었고 신앙회복도 이루었지만, 병이 나은 후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물을 자랑하는 실수를 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왜 내 돈과 권력을 자랑하는가? 결국 바벨론에게 다 빼앗겼다. 오직 주님만 자랑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5) 므낫세 왕 :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가장 악한 왕이었다. 이사를 죽였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극진히 섬겼으며,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인신제사를 지냈다. 하나님 일은 대중 하면서 마귀 섬기는 일, 나쁜 일, 자기 치는 일은 조국처럼 극진히 한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강대국들의 횡포, 빈부격차, 신종 질병, 자살률 증가, 정신병, 허위코리 문제 등이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숨어 있는 청년들이 수십만 명이다. 그들을 꼬집어내어 일하게 하면 나라가 산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이 그 차유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2. 하나님의 구원 방법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가?

(1) 남은 자(Remnant, 램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은 '남은 자'이다. 영어로 램넌트(Remnant)라고 하며, 그루터기, 거룩한 씨, 새순을 의미한다. 생명이 있는 복음,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사명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 한 사람이 나무가 되고 숲이 되고, 온 세상을 덮는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중에 십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참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라고 했다. 지난 번 산불이 났을 때 온 산이 다 탔지만, 나중에 가보면 숲이 우거져 있다. 땅속에 죽지 않은 그루터기와 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어떤 재앙과 환난 속에서도 살아남는 새씨, 생명의 씨앗이 되시기를 바란다. 남은 자가 되어 남은 자, 남은 자, 남길 자가 되어야 한다. 직장에서도 산업에서도 조용히 끝까지 남아서 멀리 미래를 보고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진짜 남은 자다.

(2) 임마누엘(Immanuel)을 통하여. 두 번째 방법은 임마누엘이다. 이사가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성취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세상 그 누구도, 부모도, 자녀도 끝까지 함께 해 줄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함께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로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야 한다.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나?"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끝까지 헤어 나오지 못하고 결국 마귀의 밭이 되고 만다. 이 사실을 알려 주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이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직 임마누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된다.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고, 이길 자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싸움 필요도, 소리 지를 필요도, 미워하거나 조급해 할 필요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 바란다. 모든 염려, 걱정,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께 맡기면 아무 문제가 될게 없다. 어떤 분이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하셨다더라. 여러분이 문제와 고통 속에 있을 때 비로소 내 고집과 자아가 깨지고 영혼의 문이 열린다. 그때 찬양이 중요하다. 내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은 원래 불신자였는데 여름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몸찬양을 연습하는 것을 옆에서 계속 보다가 가사가 귀에 들어와서 혼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셨다. 찬양은 꼭조이는 기도다.

(3)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하여. 세 번째 방법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십자가 대속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십자가는 내가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내가 밀알이 되어 죽음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십자가전쟁처럼 남을 죽여서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복음을 들어도 자꾸 땀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붙드시고 축복의 모델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시대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의 모델로 될 줄 믿으시길 바란다.

(4) 새 하늘과 새 땅(하나님 나라)을 통하여.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 나라, 즉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사야 65장, 66장에 나온다. 여호와와 증인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가르친다. 신천지는 과천에 새 예루살렘을 일한다고 한다. 예전에 기자에서 여호와와 증인들을 만났는데, 자기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1인당 3천 평, 5천 평씩 땅을 나눠 갖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서 울에 땅 만 평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오허리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더니 말을 못 하더라. 또 어떤 사람은 땅에 남고, 14만 4천 평 같은 특수한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늘나라 올라갈 테니까 당신들은 이 땅에서 사세요. 성경에 보면 이 땅은 다 없어진다고 했는데"라고 말해줬더니 깜짝 놀라더라. 빛이 없으면 이상한 소리를 믿는다. 주님은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다. 우리는 그곳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음과 응답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이 말씀보다 목사님보다 앞서서 멋대로 살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인도받고 말씀따라 언약따라 그 길을 걸어가기 바란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도록 기도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보여야 한다. 이사야 62장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

결론

정말로 성령충만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란다. 만약 여러분이 이사야, 다니엘, 에스더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난 '남은 자', '램넌트', '그루터기'가 된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 가문, 나라와 민족, 산업과 전 세계를 구원하는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는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의 많은 곳을 통해서 시대시대마다 '남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광야에서와, 속국생활과 노예 생활 속에서도,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항상 남은 자로서 나중에는 복의 근원이 되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남은 자, 램넌트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자신의 일만 남고 그 십분의 일마저도 모두 불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전세를 살려내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느 현장에 가서도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